

도내 교육공동체 다수 “생존수영교육 필요하다”

학부모 92.2% · 학생 85.7% · 교사 75.5%가 응답

전북교육청, 수상안전교육 만족도 · 효과분석 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7일 수상안전교육 만족도 및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 7월 도내 14개 시·군 초등학교 645명, 교사 322명, 학부모 1,073명 등 총 2,040명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7일 수상안전교육 만족도 및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상안전교육 현장.

설문 조사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6%가 ‘생존수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학부모 92.1%, 학생 85.7%, 교사 75.5%가 생존수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학생 응답자의 84.7%는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즐거웠다’고 답해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존수영 교육 이후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 71.9%가 ‘그렇다’고 응답해 수상안전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를 진행한 미래교육정책연구소 한숙경 소장은 “생존수영의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교육문화관 시설예약 시기를 학사일정에 맞게 조율하거나 늘봄학교와 연계해 학교밖 거점센터에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전북대 수의과대학,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 2기 사업 연속 선정 1기 사업 우수성 인정받아... 지원금 확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상열)이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2기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21년 도입돼 최근까지 3년 간 1기 사업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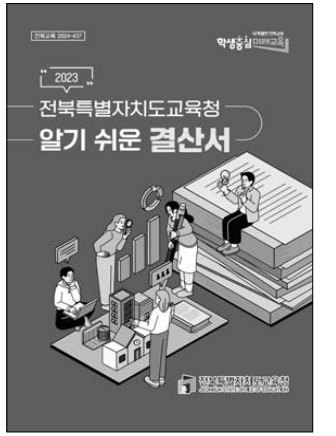
지난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기 사업에서 총백대, 제주대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했고,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과 전북대가 위탁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인정받아 2기 사업에서 3년 동안 10억5,000만 원의 최대 지원금을 확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2기 사업 공모를 실시해 전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서울대, 충북대 등 4곳의 수의대를 선정, 9월 12일 서울에서 제2기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장은성 기자

이에 따라 지정 대학들은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에서 발생하는 현안 질병과 인수공통감염병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특히 이번 2기 사업에서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 이들이 한국의 특성화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됐다.

1기와 2기 사업 책임자인 한재익 수의대 교수(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는 “야생동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에 이 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야생·특수동물 분야의 확대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그림으로 보는 '2023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림으로 보는 '2023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했다.

지난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발행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는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회계용어를 간결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 교육수요자 결산 이해도를 높였다.

이제 이번 제작한 알기 쉬운 결산서는 그림과 도표를 활용해 결산내용을 간결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 교육수요자 결산 이해도를 높였다. '2023 알기 쉬운 결산서'에는 △교육청 기본 현황 △결산 총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신자 재무과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 전북교육재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더불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술창업 스타트업 지원 전문성 인정

전북대 기술지주회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 지역 기반 대형 벤처펀드 결성, 창업기관 네트워크 확보

전북대학교 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손정민)가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했다. 이는 전북지역 대학기술지주회사 중 최초며, 호남지역에서는 전남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지난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 사무공간 제공,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 초기 필요한 육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북대 기술지주회사는 이번 등록을 통해 기술창업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의 100% 단독출자로 설립된 기술지주회사는 창업보육과 투자를 연계한 대학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출자 사업에 비수도권 대학 최대로 선정돼 총 57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며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큐베이팅 경험을 쌓았다.

이에 전북대 기술지주회사는 지역 기반 대형 벤처펀드 결성, 민간투자제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영사 신청, 다양한 창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손정민 대표이사 겸 산학협력단 단장은 “현재 운용 중인 대학창업펀드에 더해 창업기획자 자격을 확보함으로써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더욱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호남을 대표하는 창업기획자로 도약해 대학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한 단계 더 성장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7~29일 3일간 롯데백화점 전주점 6층 행사장에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교기업 제품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남원용성고 '나무소리'.

도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교기업 제품, 백화점서 판매

롯데백화점 전주점서 행사 열려... 군산기계공고 '우토리' · 남원용성고 '나무소리' 등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7~29일 3일간 롯데백화점 전주점 6층 행사장에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교기업 제품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학교기업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육과정과 기업 운영을 연계해 아이 디어부터 완성제품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판매하는 기업으로,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

함양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학교기업으로 선정·운영 중인 군산기계공고 '우토리', 남원용성고 '나무소리' 2개교가 연합으로 참여했다.

먼저, 2012년 교내 자율 목공동아리에서 출발한 '우토리'는 나무를 소재로 기계공업이라는 학생들의 전공을 살려 만년필, 수성펜 등 세상에 하나뿐인 우든펜을 제작·판매했다.

이어 2016년부터 운영된 '나무소리'는 목기와 옷칠이 유명한 지역 특성을 살려 명품도마와 옷칠그릇 등 목공예 제품을 제작·판매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행사로 학생들의 창업능력 배양 및 마케팅 전략 습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단 공유·협업 포럼

5개 대학 참여... RISE 성공 구축 상호교류 협력 등 방안 구체화

전주비전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단(LINC 3.0)은 지난 26~27일 양일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4년 LINC 3.0 대학협력 및 지역성장을 위한 5개 대학 공유·협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주비전대학교를 비롯해 강원도립대학교, 군장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제주한라대학교 등 5개 대학 40여 명의 사업관계자를 초청해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포럼에서는 각 대학이 속한 지자체와의 공유·협업 추진 계획 및 성과를 발표하고, 지역별 RISE 운영 체계와



단위과제별 LINC 3.0 사업과의 연계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RISE 전환 대학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실무진들이 RISE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대학은 △RISE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상호교류 협력 △유사학과간 교

육과정 운영정보 교류 및 LMS를 활용한 상호 교차수강 협조 △도출된 성과에 대한 벤처마칭 및 공유·확산 워크숍 공동 개최 등 각 대학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학 간 공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대비한 사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한 '2024년 찾아가는 과학축전'.

찾아가는 과학축전 성료

6개 시군 · 30개 학교에서 진행... 과학체험 기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한 '2024년 찾아가는 과학축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과학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소통·체험의 장을 마련, 과학문화 확산 및 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 8월 16일 남원여자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과학축전은 27일 백하고등학교까지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장수 등 도내 6개 시·군 30개교에서 진행했다. 참여학생 수가 3,000여 명에 달했다.

찾아가는 과학축전은 과학공연, 과학체험, 과학과 만난 진로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과학공연은 공연 속에서 과

학의 원리를 배우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학체험은 과학적 사고능력과 탐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험중심 탐구활동으로 진행했다.

과학과 만난 진로체험에서는 과학 관련 직업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 미래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찾아가는 과학축전은 과학문화 취약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고, 학력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학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개그맨 치과의사 김영삼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개그맨 치과의사 김영삼 초청 특강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삼 원장 초청 강연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전북대 중앙도서관 1층 로비 중도라운지에서 진행된다.

김영삼 원장은 전북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레지던트 시절 KBS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현재는 개인 치과를 운영 중이며,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무대에서 진로실까지'라는 주제로 그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강연은 전북대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전북 지역 대학생 및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접수는 전북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청한 50명에게는 저자의 추천도서인 알폰스 도데의 별을 제공한다. 사전 신청 이후에도 10월 11일 현장에서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하림그룹 채용설명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6일 하림그룹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심후 취창업처장, 김형기 취창업지원실장, 김영진 취창업지원실 과장, 하림지주 송재승 인사부장, 하림산업 조수진 인사팀장 등 관계자와 재학생 92명이 참석했다.

채용설명회에서는 하림그룹의 전반적인 정보와 더불어 실질적인 채용정보를 안내했다. 또한 인사담당자와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져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